

01 아시아디지털기술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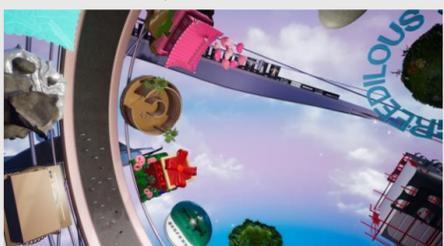
제이플러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증가⁽¹⁾⁽²⁾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성공 사례

섬유원단 후가공 업체 제이플러스가 최근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림. 제이플러스는 2021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의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게되었음.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함께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짐. 주먹구구식 생산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공장으로 다시 태어남. 제이플러스의 정재우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시간당 생산량은 25% 증가, 불량률은 15%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며,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할. 섬산련은 지난 2020년부터 정부의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섬유업계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 콘진원, 문체부와 함께 'KOCCA 메타버스 패션 페스티벌' 개최⁽³⁾⁽⁴⁾



브랜드, 유통,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패션 메타버스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KOCCA 메타버스 패션 페스티벌(KMFF 2022)'가 15일부터 31일까지 열림. 20개의 국내 패션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유통 플랫폼,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은 패션 그리고 메타시타를 주제로 가상 공간에서 열리는 패션콘텐츠 전시회임. 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인. KMFF 2022는 별도의 앱 없이도 바로 메타버스로 접속이 가능하며 패션시티, 쇼룸시티, 엔터시티로 구성된 가상 세계에서 한국의 패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음. 12월 29일부터 1월 11일까지 덕현대 서울에서,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오사카 한류백화점에서 열리는 팝업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함

(1) 국제섬유신문뉴스(ITN), 스마트공장으로 변신한 섬유원단 후가공업체, 생산성 Up, 2022년 12월 9일
(2) 사원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fori.or.kr/main.do)
(3) 한국섬유신문, 바우팅 쇼룸, 쇼룸 채널 연동, 공명 담은 'KOCCA 메타버스 패션 페스티벌', 2022년 12월 14일
(4) 사원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cca.kr/kocca/main.do)

아시아패션마켓 관련 이슈 02

중국 광저우 의류 산업 단지 청위안으로 이전⁽¹⁾⁽²⁾⁽³⁾

코로나19로 인한 반복적인 록다운과 도시 공간 제한으로 발전에 한계

중국 광저우에 집중되어있던 섬유, 의류, 액세서리 가공 및 제조업체들이 청위안으로 옮겨감. 청위안에 조성될 예정인 새로운 섬유 의류 클러스터 '명칭 중화 패션기술도시(Guangqing Zhongda Fashion Technology City)'는 중화 그룹이 50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함. 계획 부지는 666만㎡, 건축 면적은 200만㎡로 현재 80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내년 2월까지 2,000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청위안 지역은 광저우에 비해 토지 사용, 운송 등의 비용이 60~70% 수준이며 새로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들에 대해 공장 임대료 감면, 기술사 무로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됨. 중국은 청위안을 섬유, 의류 제조 및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광저우를 섬유 산업 관련 연구소와 인큐베이션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임



GUCCI, 한국에서 2024 크루즈 컬렉션 선보일 예정⁽⁴⁾⁽⁵⁾⁽⁶⁾

1998년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후 25년이 되는 해를 기념

이탈리아 기반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한국 서울에서 2024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이게 됨. 쇼는 2023년 5월 15일 열릴 예정이나 개최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구찌는 지난달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0·29 참사의 여파로 이를 취소한 후 경복궁 보존 사업을 후원하고 있음. 구찌는 한국이 역동적인 문화와 창의성으로 전세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구찌하우스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있기때문에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밝힘. 1998년 서울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지 25년 만에 열리는 쇼라는 점 또한 주목 할만 함



(1) 어패럴뉴스(APN, apparelnews), 마, 광저우 섬유 빅데이터 청위안으로 옮긴다, 2022년 12월 14일
(2) TIN뉴스(THE INDUSTRY NEWS), 마 섬유세관산업, 광저우-청위안으로, 2022년 12월 14일
(3) 사원 출처: 중화 그룹 공식 홈페이지 (http://www.gdzhongda.com/)
(4) Fashionista, 구찌, 내년 5월 2024 크루즈 컬렉션 한국에서, 2022년 12월 7일
(5) FASHIONUNITED, Gucci to present Cruise collection in South Korea, 2022년 12월 10일
(6) 사원 출처: 구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ucci.com/kr/ko/)

03 아시아섬유산업 관련 이슈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섬유시장⁽¹⁾⁽²⁾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 전년 대비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 2022년 3분기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었던 중국의 섬유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 중국의 올해 3분기 의류 및 잡화 제품 소매 판매는 상반기보다 감소폭이 25%p 줄었음. 온라인 의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23%p 증가함. 3분기 섬유·의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시장 중 유럽의 수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중국의 섬유·의류 산업의 생산 및 판매 증가율을 둔화 추세를 보이나 하락폭이 줄어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섬유마켓센터의 관계자는 "중국 섬유산업은 코로나19 손실을 복구하기위해 노력하여 섬유 품질의 발전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며 외부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중국관점에서 섬유산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터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FDY에 고율 관세 부과⁽³⁾⁽⁴⁾

국내 화섬업체들의 터키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

터키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FDY) 수입에 대해 덤핑마진 관정을 내리고 8~14.45%의 비교적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지난 11월 24일 수입분부터 적용되어 국산 폴리에스테르사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터키 정부는 약 1년 반 가량의 조사 후 지난달 24일 한국 6대 화섬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함. 이에 따라 효성은 8%, 휴비스와 성안합섬은 8.23%, 대한화섬과 도레이첨단소재에 8.42%의 관세율을 부과하였고 덤핑조사에 대응하지 않은 티케이메기칼에는 14.4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됨. 터키는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FDY에 37.54%, 중국산에는 약 2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다소 유리한 입장이지만 덤핑마진 관세가 부과되기 전과 비교하여 수출시 부담이 커지게 됨



(1) TIN뉴스(THE INDUSTRY NEWS), 마 섬유시장, 회복세 접어들다, 2022년 12월 1일
(2) 사원 출처: Phabuy 공식 홈페이지 (https://phabuy.com/ko/)
(3) 국제섬유신문(ITN), 터키 국산 FDY 수출 제재판, 2022년 12월 9일
(4) 사원 출처: Phabuy 공식 홈페이지 (https://phabuy.com/ko/)

아시아패션산업환경 관련 이슈 04

베트남, 2030년까지 섬유·의류산업 환경친화적 전환⁽¹⁾⁽²⁾

제품의 생태 설계 기준 준수와 같은 주요 수출국의 요구 충족 가능

베트남섬유협회(VITAS)는 2030년까지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는 15% 감소, 물 소비는 5분의 1로 줄일 계획이며 최근 녹색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 보일러 교체, 태양광 발전 사용 및 폐수 재사용 등이 있으며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친환경 섬유·의류 산업은 EU와 같은 베트남의 주요 의류 수출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 미국, BJ 등의 대규모 시장을 활용하려면 녹색 성장과 환경친화적 전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함



자투리 원단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필요성 대두⁽³⁾⁽⁴⁾

서울시, 내년부터 원단폐기물 분리배출 시범 사업 실시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한 분리배출 준비 또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봉제공장의 60%가 위치한 서울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의 양은 연간 4만 6천톤에 달하지만 대부분 매립 또한 소각 처리됨. 봉제원단폐기물은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나 의류와 다르게 소재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혼합배출로 버려지고 있음. 원단에도 소재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면 분리배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경우 재활용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위한 정착이 우선으로 보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원단 소재별 분리배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1) FIBRE2FASHION, Vietnam textile sector to be more environment-friendly by 2030: VITAS, 2022년 12월 4일
(2) 사원 출처: Unplash 공식 홈페이지 (https://unplash.com/)
(3) 국제섬유신문(ITN), 후계 자투리원단 재활용 시범사업, 2022년 12월 2일
(4) 사원 출처: Unplash 공식 홈페이지 (https://unplash.com/)

아시아섬유박람회 정보안내 1

Premium Textile Japan 2024 Spring/Summer

일본 최대의국제 섬유 박람회

2023년 5월 24일~25일 아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Premium Textile Japan 2024 Spring/Summer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CLICK HERE



아시아섬유박람회 정보안내 2

Gartex Texprocess India (Mumbai)

Messe Frankfurt가 주최하는 패션 제조업 전반에 관한 박람회

2023년 4월 13일~15일 사흘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Gartex Texprocess India (Mumbai)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CLICK HERE

